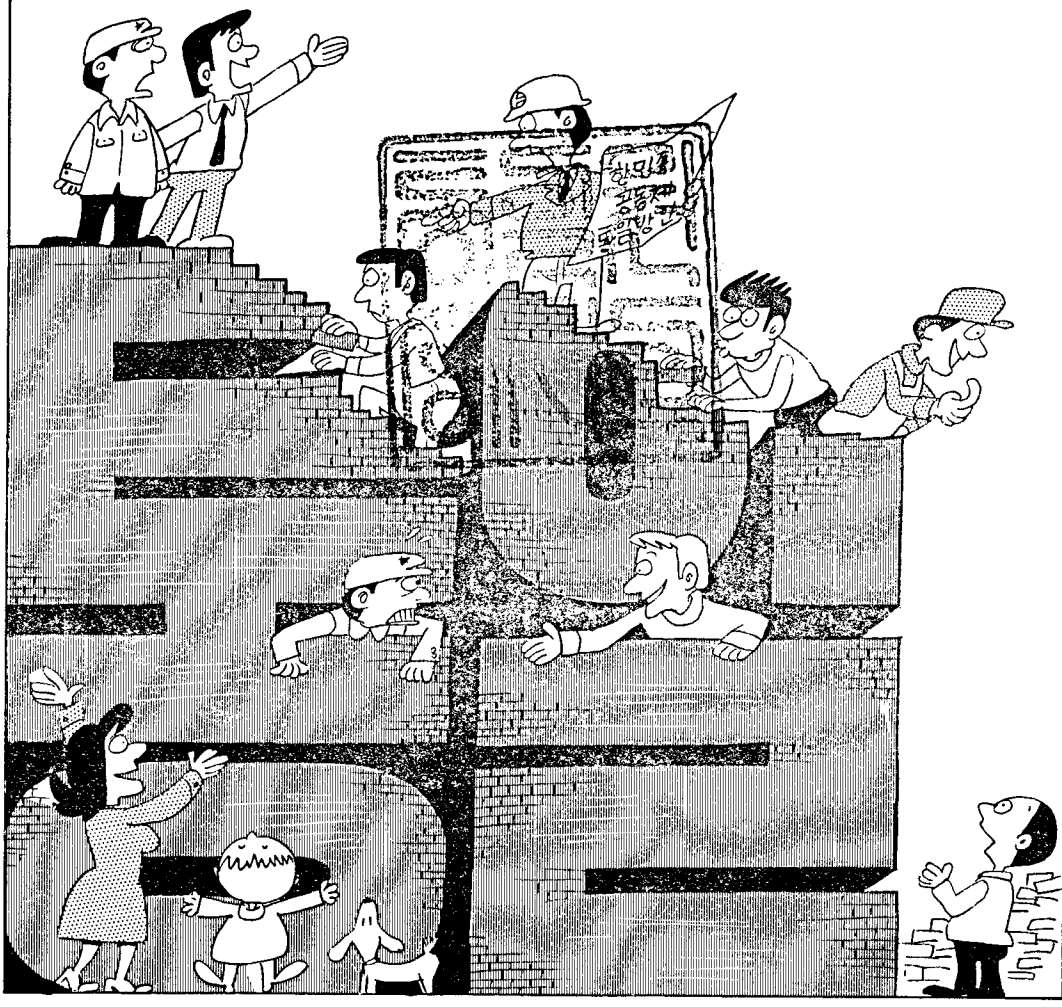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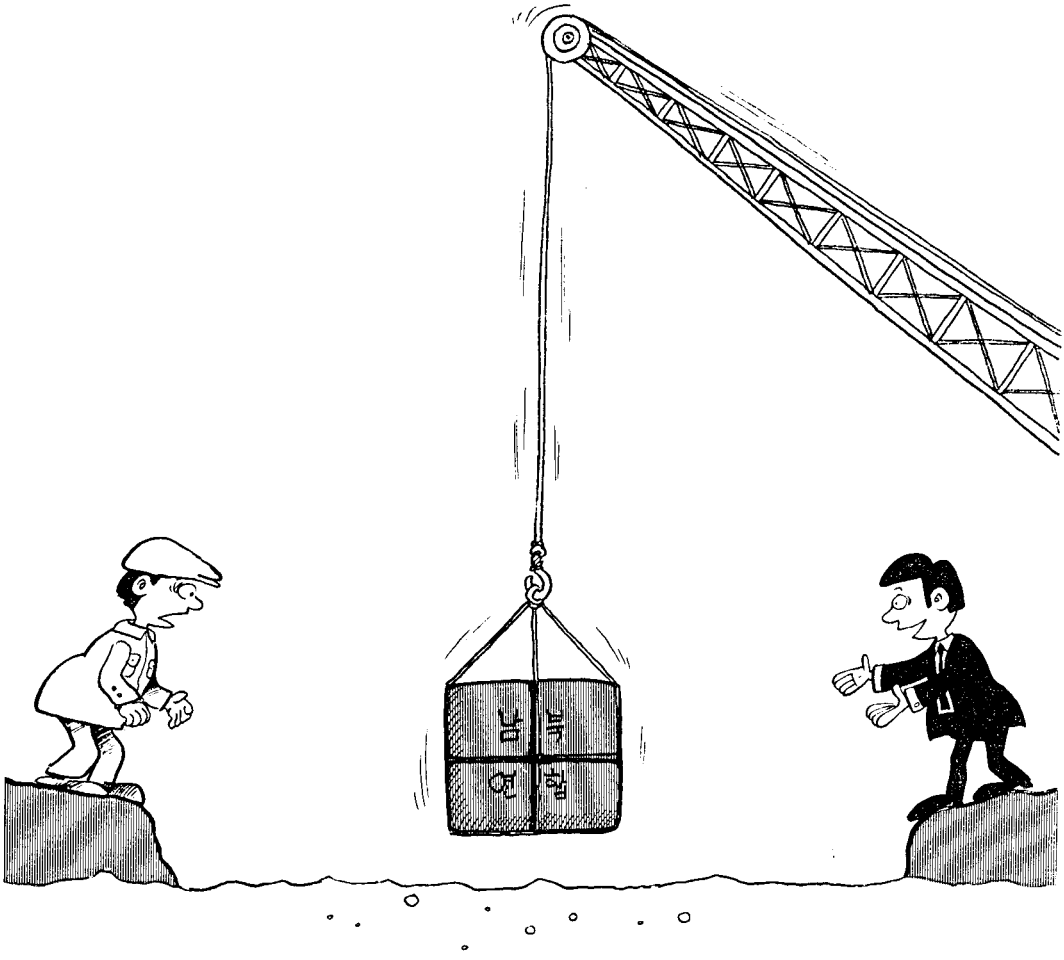
통일로 가는 길





통 일 로 향 한 징 검 다 리

통일, 왜 어려운 길인가?
-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 -

흔히들 세계의 대표적 분단국가로 남·북한과 동·서독을 꼽았다

동·서독

남·북한

그런데 동·서독은 통일이 기정사실화 되어 세계의 놀라움을 사고 있는데…

와~ 쟤들 정말 통일하네!

부럽다, 부러워…

역시 잘난 민족이다! 저렇게 단숨에 통일이 되다니…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지…

그런데 우리는 뭐야… 통일의 꿈은 아득하기만 하니…

그러게 우린 독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이봐, 그런 생각은 정말 한심한거야

우리의 통일이 속도가 느린 것은 우리 민족이 독일민족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성격이 독일과 다르기 때문이라구!

다르긴 뭐가 달라? 둘로 갈라지긴 마찬가지였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독일의 경우, 2차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지배하려다 패망하고 말았지

그래서 강대한 통일독일을 두려워한 강대국 전승국들이 강제로 동·서 2개의 독일로 갈라 놓았으니

너희들 안되겠다!

넌 이리와

서방

소련

독일이야말로 대표적인 국제형 분단국이었지

우리 나라는 안 그런가?

서독 D

동독 DDR

2차대전 직후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갈라 놓았지 않아?

소련

38도선

미국

그렇지! 그래서 한반도 분단도 역시 국제형 분단에 속하지

소련

북한

남한

미국

거기에다 해방 직후에 우리 나라는 얼마나 이념적으로 혼란했으며
공산주의
자본주의
와 와 와

정치지도자, 정파 등이 뿔뿔이 갈라져 격렬하게 싸워야 했는가 말이야?
해외독립 운동세력
민족주의 계열
친소파
공산주의 계열
친일파
국내 독립운동세력
친미파

그래서 한반도 분단의 성격은 내쟁형 성격이 가미된 국제형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구
에고, 복잡해…

독일과 한반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
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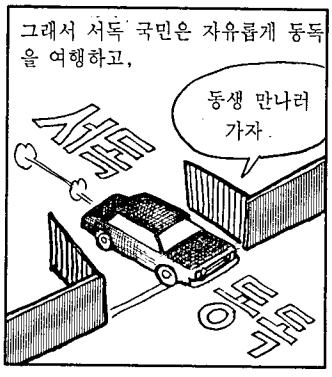
그건 6·25란 동족끼리의 처절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구
남조선
적화통일
꽝
꽈

이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고, 깊고깊은 불신과 증오의 골이 파이게 되었지
으르렁

반면에 동·서독은 강제로 분단이 되었지만
형…
서독
동독
아우야…

서로 전쟁을 치를 필요도,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불신과 증오가 길지 않았거든
옛다 이거 먹어라.!
형, 돈 벌었나봐…

다시 말해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통일될 수 있는 민족적 동질감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우리는 한 핏줄 언제 다시 합쳐야지?
응… 형아…


그래서 서독 국민은 자유롭게 동독을 여행하고,
동생 만나러 가자
서독
동독

동독 국민은 서독 TV를 보는 등 교류가 계속되었으므로
하하하… 자본주의 TV가 재미는 있거든.!

막상 공산주의정권이 무너지니 단숨에 통일로 달려갈 수 있었다구.
아우야.!
형아.!

그러니까 독일보다 한반도 분단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긴데…
국제형 분단
내정형 분단
이념갈등·전쟁
왜 남·북한은 독일처럼 서로 왕래하고 대화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거야 뭐니뭐니해도 6·25 때문에 서로 철저하게 불신하고 경계한 탓도 있지만…
저 자식 두고보자…
저 녀석이 언제 또 쳐들어 올지 몰라…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 혁명이라는 대원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공산주의식 통일이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즉 노동자 계급만을 인정하는 고로, 여러가지 계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
적화통일 이외의 통일은 곧 노동자 계급 외의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의 대원칙인 사회주의 노선에 어긋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북한의 통일노선을 남한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한다!
아예 남·북한 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 올 수 없었던 거야
東問 동문
西答 서답
이처럼 단절된 상태로 45년이 흐르다 보니…
와! 그러고 보니 반세기나…
남·북한은 사회체제나 생활양식 등이 엄청나게 서로 다른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와 탁월한 지도자 김정일…
올 여름 바캉스는 어디로 가지?
북
남

남·북한 사이에는 깊고 넓은 골이 패어져 있는 현실이고,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성스러운 과제이고…
자, 그렇다면 이 엄연한 현실에서 우린 어떤 통일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통일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
그랬으면 오죽 좋으랴만 「날개가 있는 것은 추락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역사의 수레바퀴란 말이 있듯 역사에는 날개가 있을 수 없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란…
이처럼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아 가면서 서로 조금씩 다가 가는 방법이 아니겠어?
그거 말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거야!
아항! 통일의 징검다리
국민적 합의성
타당성
현실성

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발표되었는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계속 어렵다고 고개만 갸우뚱거리는 거야?
최근 우리는 통일문제만 해도 너무나 커다란 변화에 당면하고 있어!
세상이 변한다고 통일이 쉬워지는 건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통일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구
국제정세
우선 우리 사회 안에서는 6·29선언 이래 각계 각층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 물결과 함께
6·29선언
민주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통 일
통일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주장들이 커지게 되었어!
지금까지와 다른 눈으로 통일문제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 각계의 관심과 염원을 크게 치솟게 하였으며,
통일
역사적인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와 함께
서울올림픽
와
중국·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따바라쉬! (동무)
니하오마?
KOREA
북방정책의 활발한 추진성과는
소련
중국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등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신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였거든!
북한! 이제는 품에 안을 수 있다!

하긴… 그동안 북방정책 하나는 정부가 기차게 밀고 나간 건 사실이야!
하모!

국내사정만 변했나? 국제사회 변화 한번 끝내주게 돌아갔지,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니까…

맞아! 아마 지난 1년의 변화는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걸!
소련개혁
동구권개혁
군비축소
독일통합
한·소정상회담
차우셰스쿠 처형
그리고, 그리고

동서진영의 관계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50년대 이후 치열하게 계속되어 온 이념대결과 체제경쟁이 크게 감소하고
이념보다는 빵!
경제전쟁!

새로운 데땅뜨 분위기가 무르익어 왔다.
서로 으르렁대고 살 게 아니라 화해·협력하자!
이념이 밥 먹여 주는 거 아니더라!

또한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 내부의 개혁과 개방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시장경제도입
정신없다…
끼이

민주화 물결이 크게 번져나가는 등
폴란드
헝가리
서독에 합병 국가해체
동독
체코
루마니아
등등
차우셰스쿠 땡!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결이던 국제정세의 틀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이념의 시대는 거(去)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큰 변화는…
와글
와글

우리의 통일문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빠앙!
국제정세
통일

즉,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 끼어 움츠러들었던 우리로 하여금
통일… 남·북관계 개선… 어렵고 까마득하기만 하구나…
서
동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 것이다
끼우~
어!

으아~ 앗!
휠씬 홀가분 해졌다!

자,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 통일문제…
이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노력은 제6공화국 출범이래 더욱 활발하게 정부 주도로 펼쳐졌다.
6공
희망의 나라로!
통일정책
내부여망
외부조건 변화

통일을 이루자면 우선 북한을 보는 눈과 태도를 크게 바꿔야 한다!
새안경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
원 쑤!
빨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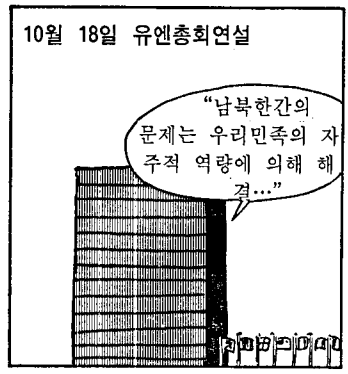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는 남·북한에 나뉘어져 사는 7천만이 다 같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다.
형님!
아우!

우리는 한 핏줄의 한 형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애써 키워 감으로써
북한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

통일에 한발짝씩 접근해 가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다.
조심!
또 조심!
통일

1988년 대통령의 7·7특별 선언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하여…


10월 18일 유엔총회연설
"남북한간의 문제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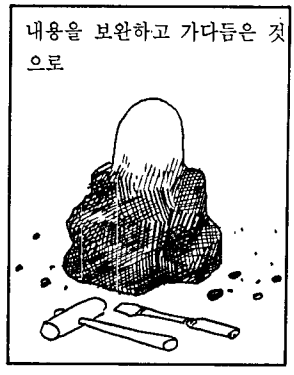
그리고 1989년 44주년 광복절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표명된 통일구상 등이
"공존 공영하면서 개방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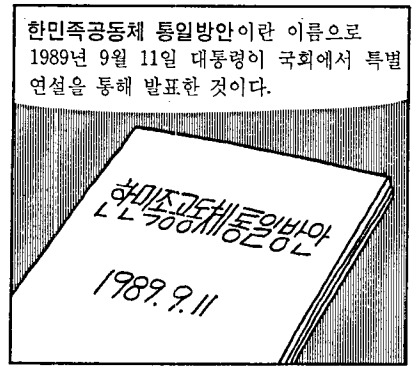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지
통일
평화
북한 개방
협력
화해
대화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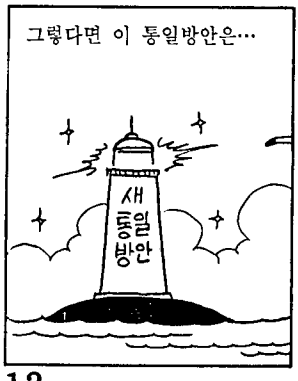
그거 노대통령 아이디어야? 아니면 정부 아이디어야?
이그~!

통일이란 엄청난 민족전체의 문제를 어찌 대통령 개인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다룰 수 있겠나?

오랜동안에 걸쳐 사회 각계의 여론을 폭넓게 받아들여
이의견
저의견
이주장
저주장
이학설
저학설


내용을 보완하고 가다듬은 것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이름으로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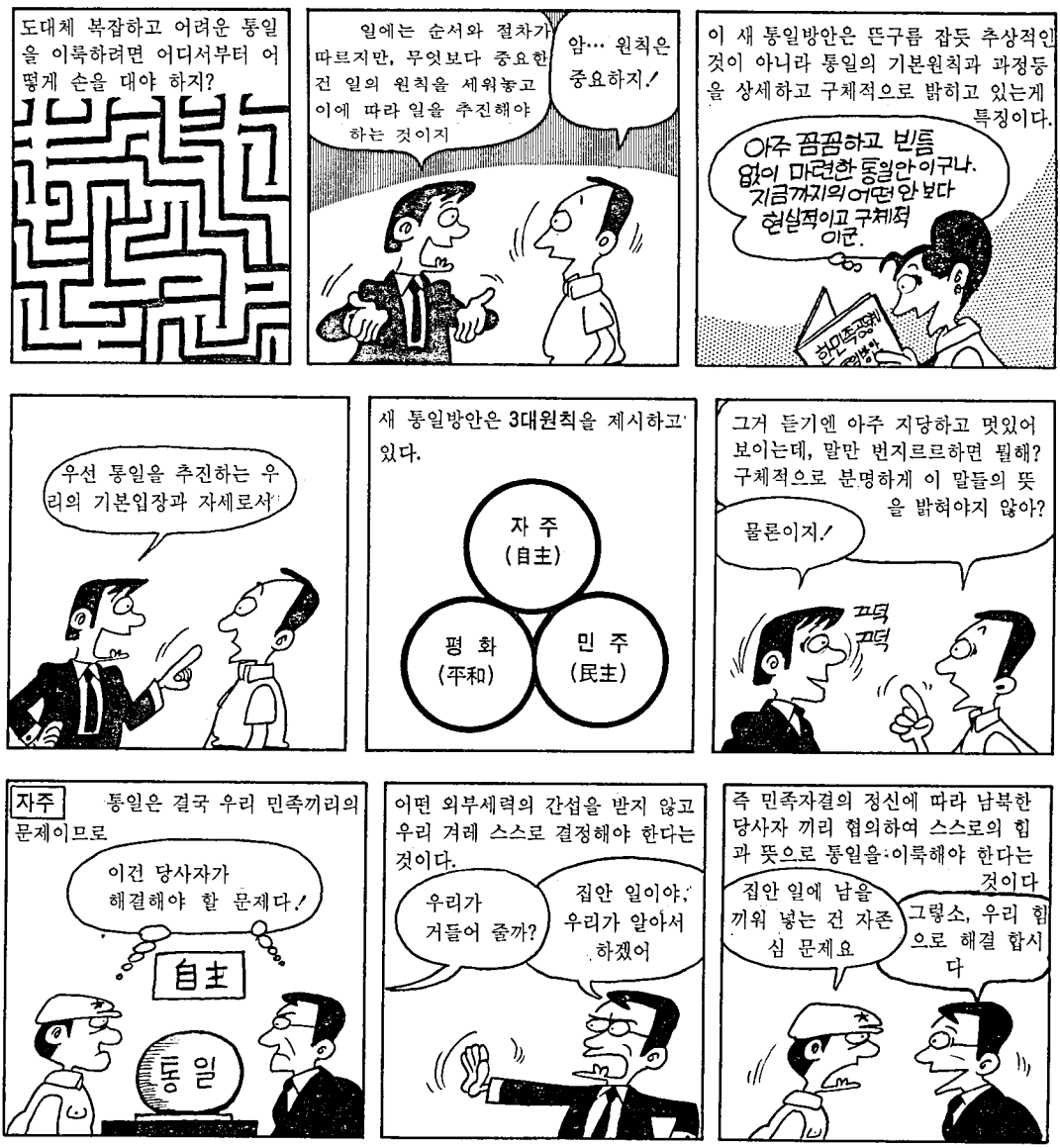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통일방안은…
새 통일 방안

제 6공화국의 공식적인 새 통일 방안으로 이제 적극 추진되고 있지!
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
어디 내용이 뭔가 뚜껑을 좀 열어 볼까?
새 통일안

어떻게 통일하자는 것인가?

통 일 의 원 칙



40여년 전 우리 겨레를 남북으로 갈라 놓은 건 분명히 강대국들이었다.
소련
미국
그렇다고 그들에게 본래대로 되돌려 놓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왜 우릴 갈라 놓았어? 물어내! 원위치 시켜 달란 말야!
또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야,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주워담니? 누가 당하고 있으랬냐?
아무렴! 더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하지 못한 통일은 결코 바람직 하지도 못해!
두 말 하면 잔소리지.
하지만 자주의 원칙이라 해서
自主
오로지 나만의 힘으로…!
국제 사회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방들의 선의의 도움까지 거절하는 폐쇄적 자주를 뜻해서도 안된다.
남의 것은 아무 소리도 안 듣겠다!
아무 것도 안 보겠다!
자주
평화
또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 과제이고…
통일
가장 절실한 염원이면 뭘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방법이…
아무렴, 중요하고 말고…
통일을 실현한다고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통일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겨레끼리 피만 흘린다는 교훈을 우리는 6·25 때 절실하게 경험했으므로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통일방안의 원칙이다.
휴전선

따라서 전쟁이나 폭력을 사용한 통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 통일방안은 담고 있다.

NO!

6·25란 처참한 민족 비극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주장일세.

전쟁~ 이제 다시는 싫어!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 믿음과 사랑으로 남·북한은 만나야 할거야!

민주

또 통일을 이룩하는 모든 과정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함은 물론,

국민합의 → 통일헌법 → 확정 → 공포 → 총선거 → 통일국회·정부 → 통일

통일이 된 뒤에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민주의 참뜻은?

우리 민족, 남·북한 7천만 동포 모두에게

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주게 하자는 것이 원칙이다.

민 주

참여보장 공헌기회

잠깐…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북한측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만이 독재하는 「인민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거야?

북한 유일계급 프롤레타리아 기타계급

무산계급은 우리 민족의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식 통일방안 즉 적화통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남한 다양한 계층

즉, 이 통일방안의 원칙인 민주는 공산주의식 통일방법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은 안된다.

적화통일

통 일 의 과 정

싸우고 헤어져 오랜 세월 동안 높은 담을 쌓고 지내던 형제가
말도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이, 우리 옛날에 싸우고 헤어졌지만…
어차피 우린 한 핏줄 아니갔어? 우리 당장 합치자우요!
그러자!
담을 헐고 한 집, 한 방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형, 님!
아우님!
너무 오래 서로 다른 생활을 한 까닭에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 우리 돼지 갈비 해 먹읍시다레!
돼지보단 소갈비가 낫지
아, 입에 감칠맛이야 돼지갈비가 훨씬 나은데…
난 돼지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따, 내가 먹고싶다는데 끝까지 우길 기야요?
내 의견은 왜 안 받아 들이지?
나 참,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의견이 엇갈리니…
이러다가는 번번히 다투겠는걸…
지금이 몇 신데 아직 안자고
이제 그만 자자구, 내일아침 출근해야 하니까.
난 새벽 두시 이전에는 잠을 못자는 습관이 있어서…
잠 좀 자자!
먼저 자라구?

난 불 켜곤 못자는 습관이 있단 말야.
그거야 자기 사정이지…

일찍 자는 습관좀 기를 수 없어?
자기가 좀 늦게 자면 될걸.!

아무리 한 핏줄 형제라지만 생각하는 거나 생활방식이 너무 달라 도저히 한 집에서 못살겠다.! 무조건 합친게 잘못이었어…

한동안 서로의 생각과 생활방식에 익숙해질 시간을 갖고 합쳐도 합쳤어야 하는건데…

한나절, 한시도 싸우지 않고 지나는 때가 없으니 어디 피곤해서 사람이 살겠나? 헤어져 사는 동안 우린 너무 변해 있었어.!
다시 헤어질 수도, 같이 살 수도 없고…

무턱대고 합치기 전에 너희집과 우리집 사이에 방을 하나 내서
우리 여기서 자주 만나자.!
만남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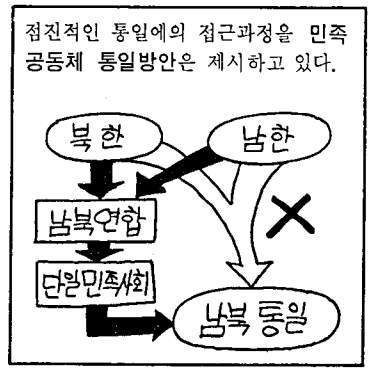
그곳에서 자주 만나며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음… 쟤는 「바보」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앞으로 조심 해야지…

같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합쳤어야만 했다. 즉 중간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개이 개이

남북한의 통일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통일 이전에 반드시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이야
분단
통일

즉,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북한
남북 연합
남한

단일 민족사회를 꾸린 다음, 마침내 완전한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워 통일을 이땅에 실현한다는
우리는 한 민족
우리는 한 나라.!


점진적인 통일에의 접근과정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제시하고 있다.
북한
남한
남북연합
단일민족사회
남북 통일

남과 북은 둘로 갈라져 40여년 간을 살아오면서
휴전선 철마는 달리고 싶다!
서로 믿지 못하고 대결하는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들!
썩어빠진 미(美) 제국주의의 하수인!
더욱이 두 사회는 성질이 물과 불처럼 다른 두 개의 체제와 이념…
남
북
즉, 북은 공산주의
모든 재산은 인민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 분배한다!
남은 자유민주주의로 나뉘어 살아온 탓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많이 퇴색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갈라진 채 서로 달라진 민족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두고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김일성장군!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하루 아침에 휴전선만 터 놓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
왁자지껄
뚝딱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한반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지만
서로 다르게 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면서
난 죽어도 창문 열고는 못잔다!
난 창문 닫고는 못 자는데…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민족사회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우리 자기 주장만 끝까지 우길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바탕을 점차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둘 다 창문을 반쯤 열고 자는 데 습관이 된 다음 같이 자자!

다시 말해 같은 민족끼리 비록 당장은 합쳐 살지는 못하지만
서로 막혀 있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왕래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넓혀 나가자는 것으로
북
남
이런 식으로 사회·문화·경제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다시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다져 나간다면,
머지않아 정치적으로도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우리의 통일방안은 이처럼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특히 중요시 하고 있다구
정말 그렇군!
하기야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모두가 바라고 있는 통일이 당장 실현될 수 없는 바엔…
현실
7천만 겨레가 그 동안에 겪어야 하는 갈라진 삶에서 오는 고통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자는 얘기 아닌가?
맞아,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통일이 시급할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하네
넓은 개울을 건너자면 징검다리가 필요한건 당연한데, 징검다리로서의 중간 과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남북연합을 만들자는 거지!
남북연합?
남북연합
南北聯合

남 북 연 합 의 구 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중간체제가 남북연합이라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연합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뭐가 다르지? 연합이나 연방이나…
무슨 소리! 고려연방제와 남북연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구!
어떻게?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란…
과도체제, 즉 중간과정 없이 남북한이 곧바로 하나의 나라로 합치자는 거지
남 한
북 한
고려연방
그러니까 남북한은 우선 통일부터 하고 보자는 얘기야, 먼저 지붕이 되는 연방정부부터 만들어 놓고 …
연방정부
남한 정부
북한 정부
그 아래에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지역정부를 두자는 것인데
연방 정부
남한 지역 정부
상호
불간섭
북한 지역 정부
그것도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자는 얘기니까…
그렇지?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숨어 있거든!
그게 뭔데?
우선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기정사실화 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진대도 한반도 분단은 영구화될 우려가 있고,
우리 맘에 들때까진 언제까지도 완전히 합치지 않겠다.
북한은 연방제 실시 전제조건으로 3가지를 내 걸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철수 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 하라!
연방제 실시 3대조건

통일이 되는데 미군이 물러가는 것도 당연하고, 공산주의 북한과 연방을 만드는데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
그것 봐! 자네도 벌써 함정에 걸렸군! 얼핏 생각하기엔 그렇지?
그러나 생각해보게 연방이 되면 어쨌든 통일된 한 나라에서 남북한의 왕래가 자유롭게 되고 북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게 되지?
거기에 공산주의 활동이 합법화되면 북한과 남한의 일부 동조세력은 이제 거리낌 없이 공산주의 선동을 해 댈 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니 이것을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지는데
공산주의
공산주의 합법
국가보안법 폐지
만약 공산주의자들과 무력충돌이 생기게 될 경우, 지금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현실에서
북
남
미군도 철수한 마당에 연방제 안에서 남북이 맞부딪게 된다면?
…남한의 ….적화통일!
바로 그거야! 적화통일의 저의가 숨어 있는 연방제통일안은 세가지 전제조건을 거두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으면 연방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민족 전체를 위하는 통일방안이라면 같이 상의해 보자는 것이지…
연방제가 남한과 북한이란 정부 대 정부간의 관계라면
남북연합에서의 남북은 어떤 관계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지

남북연합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니… 그건 무슨 소리야?
쉽게 얘기하자면…
남북연합이 발족되면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뿌리의식에서 출발하여
남북연합
북한
남한
민족공동체
연합의 형태로 서로 손잡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으로
남조선이 금강산 종합개발에 투자하시오
좋소, 그래서 세계 제1의 휴양단지로 개발합시다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족의 연합체이며
과도적 관리체제가 생기는 셈이지
남북연합
분단
통일
연방이 목표 그 자체인데 비해 연합은 목표를 향한 징검다리란 말이지?
하~ 자네 똑똑하군!
딱
이 연합체제 아래, 안으로는 남북 상호간에 생기는 이해관계를 비롯한 주요 현안 문제를 협의 조절하고
우선 남북간에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상호 불가침 협정부터 맺읍시다
밖으로는 남·북한이 서로 헐뜯거나
상호 비방 하지 맙시다.
쓸데 없는 경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등
우리 다음 올림픽에서 남북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게 되거든.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면 세계 2, 3위는 가능하지 않겠소?
그럽시다!
짜
듣고 보니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어 쓸 수 없듯, 통일도 차근차근 남북간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며 해야겠군
아무렴! 남북연합으로 둘로 갈라져 손상된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아 키워 나가는 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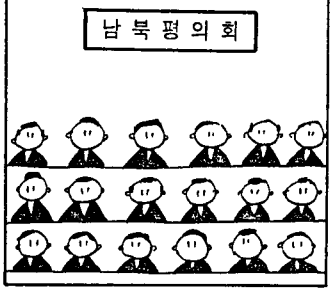
남북연합기구

자, 그렇다면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남북연합에서는 남북의 수뇌가 만나 상의하는 **남북정상회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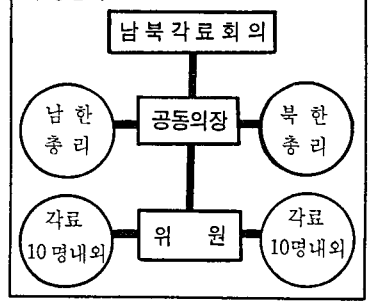
쌍방 정부의 대표로 구성하는 **남북각료회의**

남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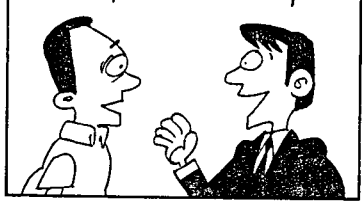
남북각료회의는 남북 쌍방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기 10명 안팎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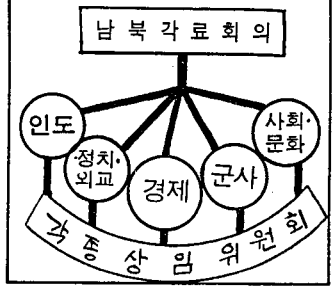


남북한이 완전히 1대1로 만나는 거군

아무렴 어느 쪽도 불리해선 안되니까!



또 이 **각료회의** 안에는 각종 상임위원회가 두어진다.



각종 상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실질적인 통일의 기초작업이지

즉, 이산가족들의 재결합문제와 같은 남북간에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들과

맨 먼저 이산가족 상호 방문부터 허용합시다

좋아요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방안 등 민족공동과제들을 협의조정하고

남북한 용어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합시다

그 실행을 확실히 다져 나가는,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기구이다.

실무를 다루는 기구가 남북각료회의라면, 남북평의회는 남북의 공동국회 비슷한 건가?

그렇지, 남북 양측의 국회의원 중에서 같은 수를 뽑아 대략 10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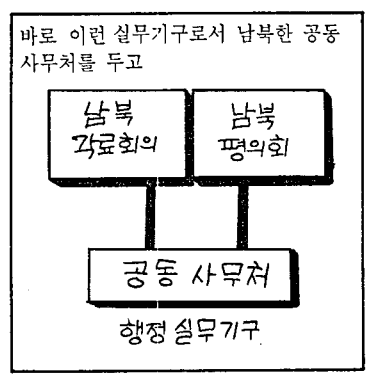
이것은 우선 각료회의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면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지요.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앞으로 세워질 통일조국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는 통일국가 헌법안을 만들고
조국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대통령직선제가 좋을까?
내각책임제로 할까?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안과 절차를 서로 의논하여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된다.
우선 돈을 통일시켜 경제통합부터 합시다
북한에서 복부인,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해요
휴전선을 그린벨트로 묶어 둡시다

자, 이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여기서 합의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구가 있어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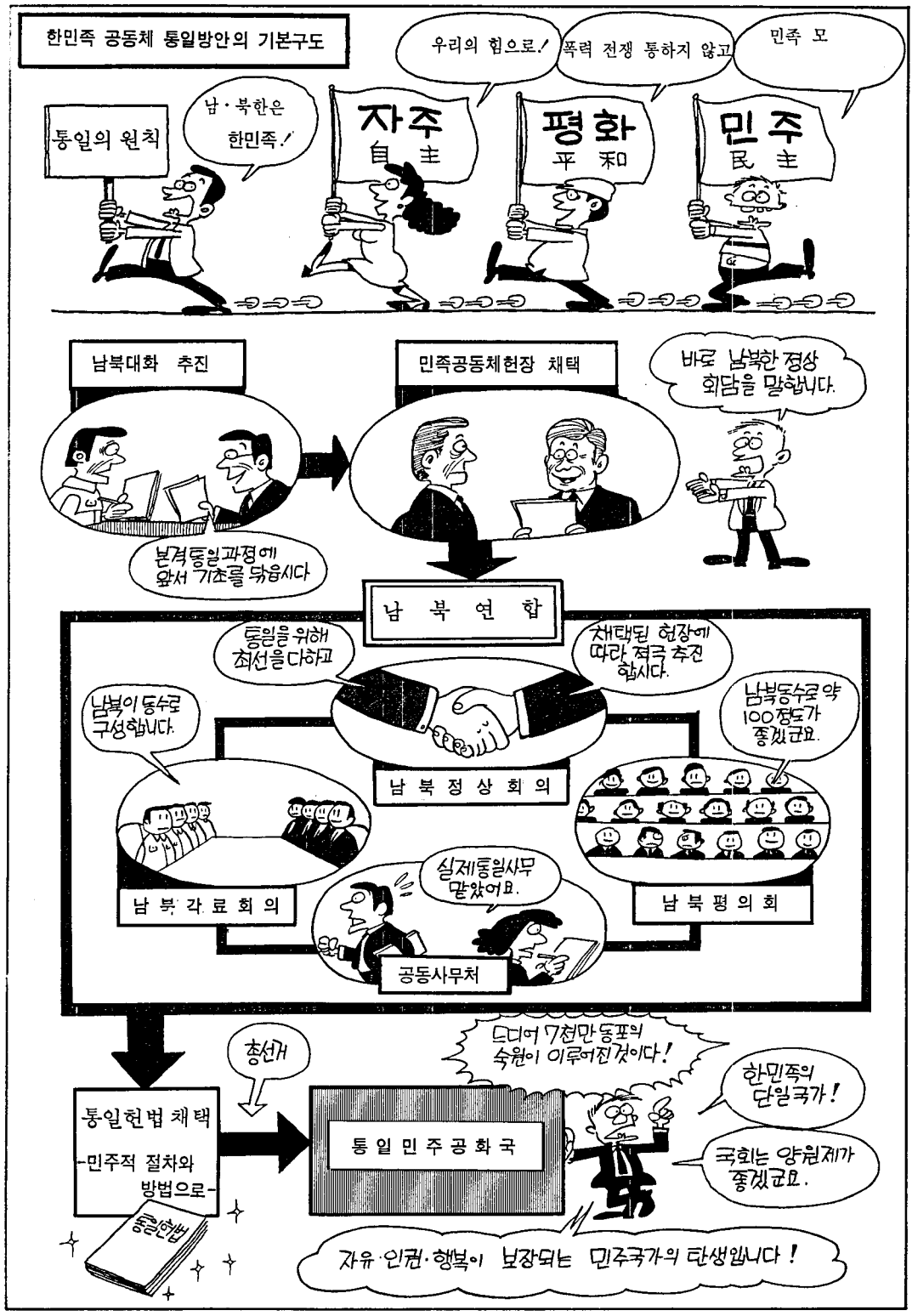
그렇지! 실제로 행정적인 일을 맡아 처리해 주는 사무기구가 있어야 해.


바로 이런 실무기구로서 남북한 공동 사무처를 두고
남북 각료회의
남북 평의회
공동 사무처
행정 실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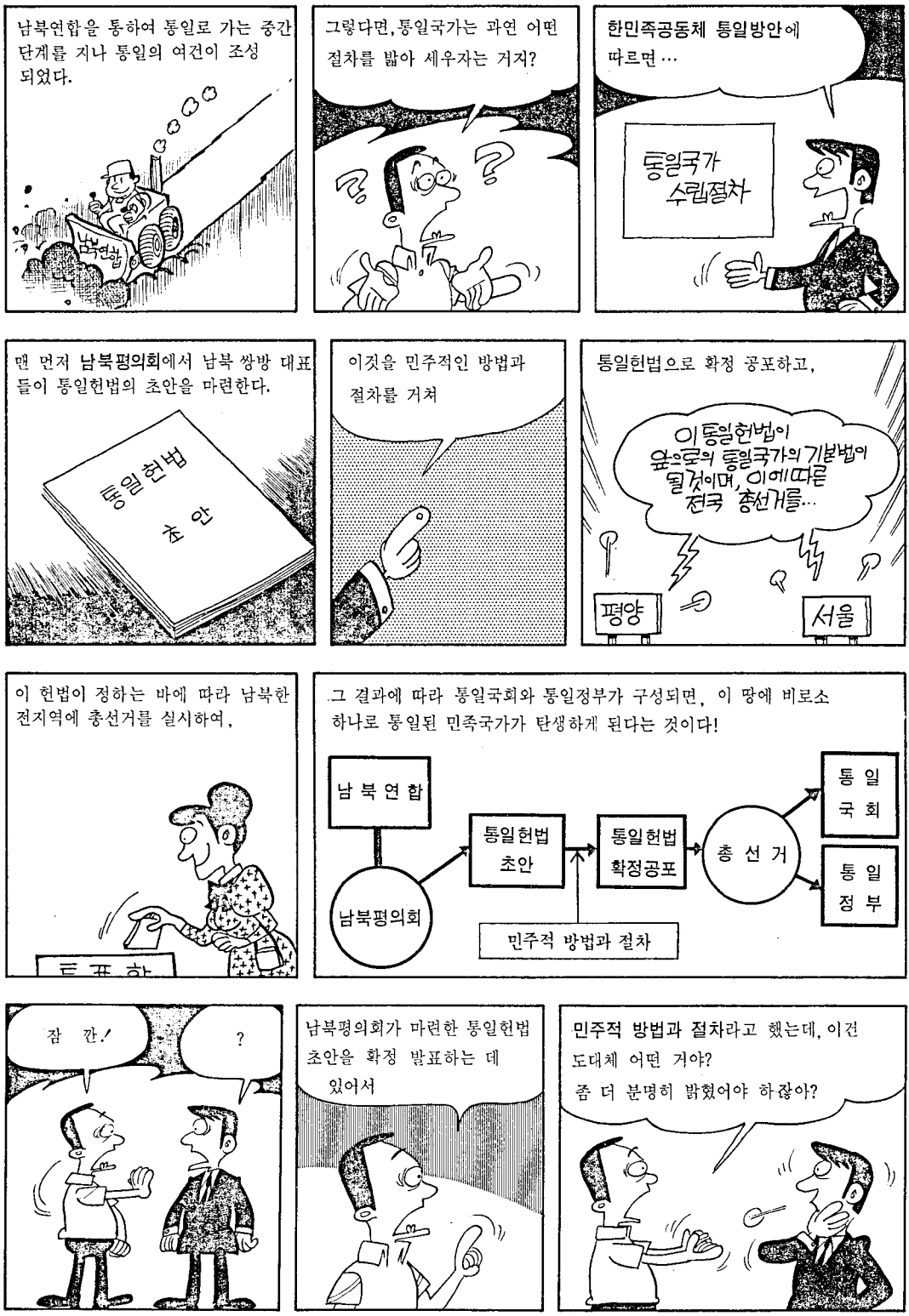
서울과 평양에는 상주 연락대표를 파견하여
평양
서울
남한 연락대표
북한 연락대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토록 하자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제안하고 있다.
여보세요, 서울이죠? 평양성묘단 명단 좀 팩스로 보내주세요!
거기 평양이가? 인민예술가무단 좀 날래 보내라우!

참 빈틈없이 생각했군, 그런데…
그런데?
남북연합을 하자면 적지 않은 기구와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다 이걸 둬야 하지?
?
평양? 서울? 두 군데 다?
하하하… 아주 간단해!
비무장지대 안에 적합한 지역을 고르면 되잖아?
맞다! 비무장지대가 있었지! 남북한이 만나는 바로 그 곳! 휴전선 안의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에서 적당한 곳을 골라 평화구역을 만드는 거야.
평화구역! 말만 들어도 멋지다!
이 평화구역은 앞으로 남북간에 이루어지게 될 교류와 협력의 통로가 될 뿐더러
평화구역
여기에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회관 등
형님~!
아우야!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회관
평화광장
남북 쌍방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
북군인사교회관
민족전통 놀이마당
남북 청소년수련장
남북공동경기장
한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범 지역으로 키워나가 앞날의 민족통일을 내다보자는 큰 뜻이 담겨 있지
평화구역… 나도 그 곳을 자주 이용하겠어!
??
마누라와 싸우면 맨 먼저 그 곳으로 달려 가겠다고…
에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통일의 원칙
남·북한은 한민족!
우리의 힘으로!
자주 自主
폭력 전쟁 통하지 않고
평화 平和
민족 모
민주 民主
남북대화 추진
본격통일과정에 앞서 기초를 닦읍시다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바로 남북한 정상 회담을 말합니다.
남 북 연 합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채택된 헌장에 따라 적극 추진 합시다.
남북이 동수로 구성합니다.
남북동수로 약 100정도가 좋겠군요.
남 북 정 상 회 의
남 북 각 료 회 의
실제통일사무 맡았어요.
공동사무처
남 북 평 의 회
총선거
드디어 7천만 동포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통일헌법 채택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헌법
통 일 민 주 공 화 국
한민족의 단일국가!
국회는 양원제가 좋겠군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탄생입니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


남북연합을 통하여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를 지나 통일의 여건이 조성 되었다.
남북연합
그렇다면, 통일국가는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 세우자는 거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통일국가 수립절차
맨 먼저 남북평의회에서 남북 쌍방 대표들이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한다.
통일헌법 초안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으로 확정 공포하고,
이 통일헌법이 앞으로의 통일국가의 기본법이 될것이며, 이에 따른 전국 총선거를…
평양
서울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전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가 구성되면, 이 땅에 비로소 하나로 통일된 민족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 북 연 합
남북평의회
통일헌법 초안
통일헌법 확정공포
민주적 방법과 절차
총 선 거
통 일 국 회
통 일 정 부
잠 깐!
?
남북평의회가 마련한 통일헌법 초안을 확정 발표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방법과 절차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거야? 좀 더 분명히 밝혔어야 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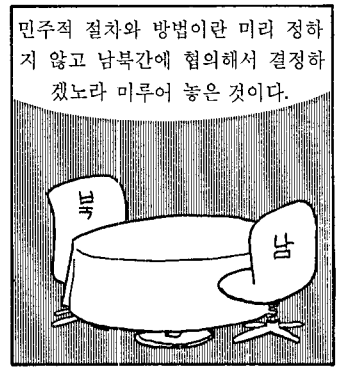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내 말 좀 들어봐.
?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이는 하나만 낳고, 부모님 모시고 살겠소!

대번에 말썽이 생길테지?
아니! 언제 나랑 상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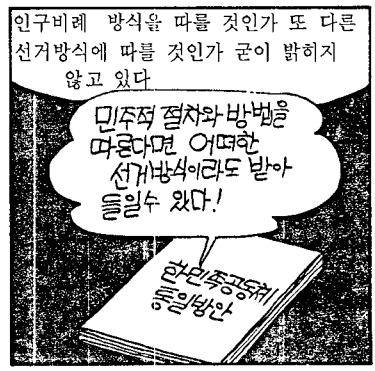
대신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모든 건 아내와 상의해서 서로 좋게 결정하겠소
끄덕 끄덕
끄덕

맞다,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테니까…


민주적 절차와 방법이란 미리 정하지 않고 남북간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노라 미루어 놓은 것이다.
북
남

통일국회나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밝히고 있는 원칙은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다


인구비례 방식을 따를 것인가 또 다른 선거방식에 따를 것인가 굳이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면 어떠한 선거방식이라도 받아들일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것 역시 통일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상의하여 정하도록 해 놓은 것이로군!

맞았어! 우리측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방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 갖는 성실성이요, 유연성인 거라구
다음껏 그리세요

통일을 위한 당면조치

그래,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이 어떤 건지 이젠 알겠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과연 통일의 매듭을 어디에서부터 풀어 나갈거야? 당장 손댈 것이 무엇이냐구?
통일방안
마음같아서야 당장 휴전선을 열고 7천만 남북한 동포가 한꺼번에 달려가 부둥켜 안고 싶지, 하지만 그게 어디 금방 될 일인가
아무래도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하루 속히 만나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지!
그래서 이 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고 있는거야
빨리 최고당국자들이 만나 물꼬를 트도록 하자!
남북의 수뇌가 만나 남북협력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 민족공동체헌장을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구
민족공동체
헌장!
민족공동체 헌장?
암 통일을 향한 첫 주춧돌인 셈이지
그리고 통일국가 건설까지의 모든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기본규약이며
남북정상회담
민족공동체헌장
통일원칙
기구설치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질서방향
여기는 남북간의 평화와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약속과 남북연합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지게 될 거야…
무슨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끼리 전쟁은 하지 맙시다!
또 하나!
남북통일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
그게 뭔데?
북한의 태도 변화이지
맞다, 북한은 너무 폐쇄적이야!
출입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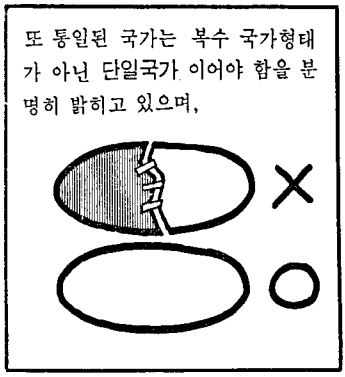
1989년 9월 11일, 새 통일방안을 발표하는 국회특별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에 촉구하였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
평화!
평화!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사실상 통일의 열쇠이기도 하지
!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는 이미 무너져버린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좌르르르
북한만은 아직도 역사를 거슬러 가려 하고 있다.
역사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야 한다! 어버이수령만 따르라!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막혀 실질적인 통일의 길을 터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주민
통일행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만을 고집하고 이것을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통일은 결국 이루어질 수
적화통일!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없는 일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 적화통일의 꿈을 포기하고 대화와 화해의 마당으로 일단 나서야 된다
통일행
부릉 부릉

이 통일방안은 어떤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인가?

진정한 민주 공화국이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
인권
행복

민주국가를 말하는 거지!


또 통일된 국가는 복수 국가형태가 아닌 단일국가 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
○

통일국가의 체제는 반드시 민주공화국 이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민주 공화국

통일만 된다면 아무 것이라도 좋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거야
통일만 된다면 체제는 아무래도 좋다!
그뒤에 따르는 엄청난 혼란은 어쩌고…?!

북한은 공산주의식 통일을 주장하고 남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일은 결국 불가능한 게 아닌가? 서로 자기가 택한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적인 흐름은 이념이 퇴색하고 곳곳에서 민족적 단결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민족
이념

또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로 다른 이념에만 얽매어 있으면 정말 통일의 길은 아득하기만 하다.
이념

그러니까 이념은 일단 접어두고 서로의 체제는 인정하되
나는 공산주의자다!
누가 뭐랬나?

우선 인간의 만남, 즉 남북이 한 민족으로 만나자는 것
그것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것으로부터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가자! 정치나 이념보다 핏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념은 곳곳에서 걸림돌로 통일의 길을 가로막을 텐데…
이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일단 길을 떠나고 봐야지, 걱정만 하고 앉아서는 아무 것도 안돼!
한 민족의 만남으로 통일의 길을 가다보면 반드시 이념을 넘어서서 남북이 굳게 뭉치는 날이 올 거야!
형님!
아우님!
이념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판에 북한이라고 영원히 공산주의를 고수할 수 있겠어?
참, 멀리도 내다 보고 있구나!
아무렴
위대한 통일조국,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인데 코 앞만 보아서야 되겠는가?
통일조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통일 국회는 어떤 형태가 좋을까?
국 회
양원제를 제안하고 있지
그건 또 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상 원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
함경도 지역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등등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하여
의원
주민수 (유권자수)
의원
주민수
하 원
전체 지역간의 균형과 모든 민족구성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고려한 거야.
지역
지역
아~ 통일이여 어서 오라! 하루 속히 통일조국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구나~!

이 통일방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통일방안의 첫째 특징은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의 결성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네
남 북 연 합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 아래에서 완전한 통일국가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 고안해 낸 것이 남북연합이다
분단
상호불신
남북
대치
연합
이질화
통일
1982년에도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한 바 있지만
중간과정이 필요하므로 남북간에 기본관계잠정협정을 맺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중간과정을 관리할 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과거의 구상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이 통일방안인데
이만하면 상세하지 않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우리의 남북연합안을 북한측은 예상대로 즉각 비난하고 나섰고,
두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제2의 분열책동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
북한에게 자본주의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냉정히 생각해 보자면…
대화단절
적대감
이념대립
6.25
독일은 중간과정 없이 단숨에 통일에 이르고 있지만 한반도는 독일과 다르다. 남북한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다.
서독
동독
남한
북한
남북연합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진 사람은 나와 보라고 해, 얼마든지 받아줄테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엔 분명한 것 같군…

이 통일방안의 두번째 특징은 민족통일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정치통일
1 민족통일
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명칭이 붙었겠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
우리는 「한민족」이란 마음으로 뭉치자! 즉, 민족의 뿌리를 되찾아 갈라진 민족부터 통일하고, 이어서 국가를 통일하자는 것이다.
암! 이념이고 체제고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이 땅에 우리 민족은 수천·수만년을 살아 왔지만 공산주의다 뭐다 하는 이념이야 불과 몇 십년밖에 안된다.
이념은 짧고 민족은 영원하다!
더구나 이념이 퇴색하고 있는 오늘날, 낡은 이념의 망령이 민족통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
통일
부르릉…
이념
민족공동체 의식…
우리는 한민족, 한겨레! 단군의 자손!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요,
북한
남한
한민족
갈라져 있는 남북의 겨레를 다시 묶는 가장 큰 명분이며,
민족
공동체 의식
통일로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인 만큼
민족공동체의식
통일호
그 무엇보다 먼저 민족부터 결합, 통합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독일의 통일도 동·서독 민족의 뿌리깊은 공동체의식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서독
동독
독일민족

세번째 특징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조국에 이룩될 통일국가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며, 단일국가여야 한다!
따라서 이 방안은 연방제 방식과 같은 겉모양의 통일보다 더욱 완성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통일방안
연방제
단일국가
북한
남한
단일국가 라고 못박은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는 다른 성격의 통일국가임을 뜻한다.
연방제 통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고유 감정이나 경험에 안맞아!
민주공화국으로 못박은 이유는 뭐지?
북한은 물론이려니와
남한 내부에도 통일지상주의자가 존재하거든
조건 없이 통일부터 하자!
통일만이 최고의 미덕이다!
무조건 통일부터 한다면 통일조국의 체제는 어떻게 되며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냐 통일만 된다면 자본주의체제건 공산주의체제건 어느 체제라도 좋아! 민족숙원 즉각 쟁취하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군! 당신들의 통일지상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현실을 직시해야지!
분단주의자!
이처럼 미래 통일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못 박고
민주공화국
단일국가
통일 이후 국가의 형태와 국회의 구성 방법 등 우리측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일방안이다.
양원제
지역·인구 균형
민주 공화국
한민족의 단일국가
한민족공동체
남북연합
종전의 통일방안보다 한 걸음 앞서 가는군.
아무렴!

넷째, **북한측 입장과 주장을 폭넓게 수용한** 통일방안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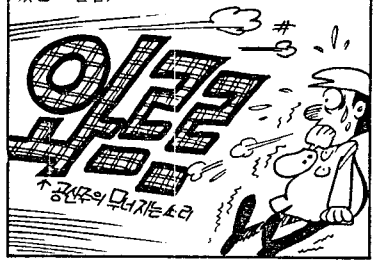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려면 자기 주장만 내세워도 안되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면 아무런 진전도 볼 수가 없는 만큼,

새 통일방안은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하는 바와, 처하고 있는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아량을 보이고 상대를 이해하려 들어야 얘기가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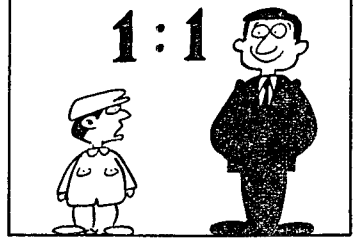
더구나 세계적으로 공산세계가 몰락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입장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통일방안은 이런 정신으로 북한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인구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훨씬 규모가 크지만 1 대 1로 대하겠다는 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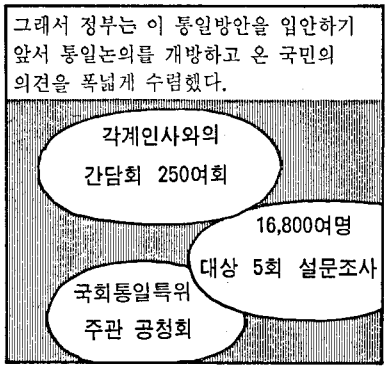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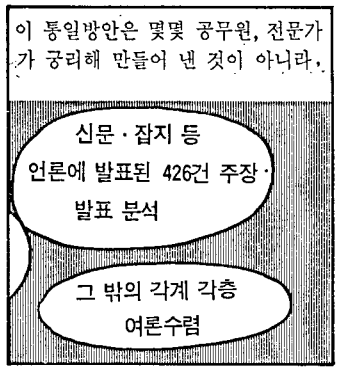
북한이 항상 되풀이 해 온 주장에

우리측은 폭넓고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남북연합**을 빨리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은 어떤 뜻을 가지는가?





셋째, 이 방안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인된 우리 국민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내외 환경이 통일을 위해 유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소 군비축소 합의

동구권, 공산주의 포기

독일 실질적 통일

소련에 시장경제 도입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추진

제6공화국 정부의 강렬한 통일의지를 담고 있다.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기필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고야 말리라!!

세계의 놀라움 속에 독일은 이제 통일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전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곳은?

오직 하나 남은 분단국가 코리아!

우리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반세기에 가깝도록 흘러온 분단의 강을 건너 7천만 겨레가 하나가 되는 뜨거운 포옹 속에 조국통일의 과업을 기필코 완수하여야 한다!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통일로 가는 길

1990년 9월 5일 인 쇄
1990년 9월 11일 발 행
그 림 이 원 복
발 행 국토통일원교육홍보국
인 쇄 양 동 문 화 사

〈비 매 품〉